

# 브룩스·멩덴, 마운드 특급 과외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핵심 브룩스와 멩덴이 후배들의 '과외 선생님'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합평 헬린저스필드에서 라이브 피칭이 끝난 뒤 김현수의 투구폼을 보여주는 브룩스(왼쪽 사진)와 27일 홍원빈·김양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멩덴. /김여울 기자 wool@

### 합평 캠프...브룩스, 김현수와 자세·타이밍 등 족집게 과외 멩덴, 첫 라이브 피칭...직구 구속 최고 144km 던지며 기대감 상승

### 훈련 뒤엔 '미니 야구 교실'...홍원빈·김양수와 묻고 답하며 조언

KIA 타이거즈에 특급 과외 선생님이 있다? KIA는 올 시즌 애런 브룩스, 다니엘 멩덴으로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지난해 이미 KBO리그를 평정한 브룩스와 새로운 리그에 도전하는 멩덴은 KIA 마운드의 두 축이다. 확실한 도중 선발없는 KIA 마운드의 핵심 전력인 두 사람은 덕아웃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신예 투수들'을 키우는 특급 과외선생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합평 헬린저스필드에서 KIA의 캠프 첫 라이브 피칭이 진행된 지난 26일. 가장 먼저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 브룩스는 자신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마운드를 응시했다. 자신에 이어 라이브 훈련에 나선 김현수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김현수는 이번 캠프에서 브룩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공금한 게 있으면 서슴없이 브룩스에게 묻고 답을 듣고 있다. 그리고 브룩스가

이야기해준 부분을 훈련에 적용하면서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직접 구사해볼 첫 라이브 피칭을 앞두고 김현수는 브룩스에게 "피칭을 봐 주라"는 요청을 했다. 브룩스는 "스프링캠프 초부터 김현수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하체가 상체보다 빠리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이야기를 해줬다. 타이밍도 봐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봤다"며 "좋았다. 지속적으로 던지는 게 중요한데 달라버리 이런 것도 일침해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브룩스는 김현수의 피칭이 끝난 뒤에는 함께 러닝을 하면서 직접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28일에는 멩덴이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시즌 팔꿈치 뺏조각 제거술,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실전이 부족했던 만큼 멩덴 자신은 물론 윌리엄스 감독도 긴장감을 가지고 임한 라이브 피칭. 투구 전 기도까지 하면서 라이브 피칭에 나선 멩덴은 "지난 9월 이후 처음 타자를 상대로 던졌다. 다시 타석에 타자 있는 것 보니까 즐거웠다. 스트라이크 공력에 집중했고, 무엇보다 던지고 나서 몸 상태를 신경 썼다. 팔 상태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느낌이 좋다"며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를 섞어 던졌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괜찮게 던졌는데 커터 제구가 조금 불안정했다. 그래도 타석에서 타자들 볼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날 멩덴의 최고 직구 구속은 144km를 기록했다. 박수를 받으며 라이브 피칭을 끝낸 멩덴은 이내 '과외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멩덴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던 3년 차 홍원빈과 2년 차 김양수가 멩덴을 붙잡고 경기할 때 공금한 부분들을 물었고, 멩덴은 친절하게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며 '미니 야구 교실'이 열렸다. 특히 홍원빈은 2군 선수단에서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만큼 '낯선 얼굴'이지만 멩덴은 "오늘은 피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에 피칭을 직접 보게 되면 확인해주겠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소문난 '빅리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특급 투수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고민 많은 KIA의 '마운드 육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증거 내나라” vs “공개하겠다”

###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점입가경...폭로자측, 음성 파일 등 증거물 예고

한국 축구계를 뒤흔든 이른바 '기성용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 사건이 종착역으로 치닫하고 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C씨와 D씨 측이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여론재판'의 결과가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면서 파문은 시작됐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C씨와 D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들이 기성용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애초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이들이 '기성용에게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상 '여론재판' 밖에 없어 보였다. 실제로 상황은 여론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면서 "왜 증거를 얘기안하고 탄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박 변호사는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또 폭로가 이뤄진 뒤 기성용 측이 전화 통화로 협박·희유를 시도했다고 C씨와 D씨 측이 주장하는 가운데,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수십 개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 K리그 개막전 '아쉬운 패배'

### '리그1' 광주, 수원삼성에 0-1 선수들 조화 속 펠리페 공백 실감

### '리그2' 전남, 충남아산과 0-0 사무엘 활발한 공격 속 골대 불운

광주FC가 아쉬운 패배로 2021시즌을 열었다. 광주는 지난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K리그1 2021 개막전을 치렀다. 골키퍼 윤보상을 중심으로 수원의 공세를 잘 막았지만, 후반 5분 김건희에게 실점하면서 0-1로 시즌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에서 첫 경기를 지휘한 김호영 감독은 김주공을 원톱으로 해 엄원상-김종우-이찬동-송승민으로 2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김원식 3선, 이민기-한희훈-이한도-여봉훈을 포백에 배치하는 4-1-4-1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광주로 돌아온 이찬동, 송승민, 윤보상이 나란히 출격하면서 '복귀전'에 나섰다. 적지에서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벌인 광주. 수원의 거센 압박 속 윤보상이 전반전 가장 바쁘게 움직였다.



광주FC의 엄원상이 지난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K리그1 2021시즌 개막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니다 보니 국내 선수로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슈팅을 많이 허용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첫 경기를 평가했다. 한편 지난 27일 안방에서 2021시즌의 막을 연 전남 드래곤즈는 충남아산FC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주장' 이종호와 사무엘을 투톱으로 해 공세를 펼쳤다. 김현욱, 장성재, 율래, 이후권으로 허리를 받치고, 황기욱, 고태원, 박찬용, 김영욱이 새로 가세한 골키퍼 김다솔과 수비진영을 구축했다. 전반 2분 김현욱이 시원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시즌 개막을 알렸다. 초반 상대의 공세에 시달리던 전남이 사무엘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34분 중앙에서 공을 잡은

사무엘이 3명의 수비수를 몰고 왼쪽 측면을 돌파했다. 페널티박스까지 진입한 사무엘이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살짝 골대를 비껴났다. 사무엘은 전반 38분에는 터닝슛을 시도하며 눈길을 끌었다. 사무엘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졌다. 후반 10분 탄력 있는 질주로 오른쪽 측면을 뚫은 사무엘은 이종호에게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다. 후반 12분 역습 기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사무엘이 오른쪽을 파고들어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경기장에는 아쉬운 탄성이 쏟아졌다. 전남은 후반 막판에도 부지런히 상대 골대를 두드렸지만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전남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지만, 사무엘이 성공적인 K리그 데뷔전을 치르며 기대감을 키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대, 1승 더하면 '대학 축구 최강'

###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배 결승 진출...6일 제주국제대와 일전

광주대가 대학 축구 최강자 자리에 도전한다. 광주대가 1일 경남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배 리그 준결승전에서 2-1로 승리를 거뒀다.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광주대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우승컵을 놓고 대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상대는 연세대를 승부차기로 꺾은 제주국제대다. '난적' 중앙대와 고려대를 꺾으며 2승 1패로 16강에 오른 광주대는 송실대와의 16강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한남대와의 8강전에서는 4골을 폭발시키며 4-

0 대승을 장식했다. 그리고 정주대와 준결승전에서는 설현진이 해설사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반 24분 선제골을 기록한 설현진은 1-1로 맞선 후반 37분 다시 한번 골맛을 보면서 리드를 가져왔다. 광주대는 설현진의 두 번째 골을 잘 지키면서 결승행을 확정했다. 한편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통영시와 통영시축구협회가 주관해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와 평림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한산대첩배'와 '동영배' 2개 리그로 구분돼 2개의 우승팀이 가려진다. 광주대는 한산대첩배 리그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